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검사복 준비를 하지 않은 병원은 전혀 없었다. 모든 병원에서 검사복을 이용하고 있으나 검사복은 한벌로 몇번이고 사용하고 크기는 남·여 구별이 없이 사용하는 병원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복을 준비함은 물론 청결하고 위생적인 사용이 시급하였다.

<5> X-선 촬영시 탈의(脫衣)에 관한 환자의 반응

신구전문대학

김 성 수

X-선 촬영시 방사선사가 환자를 소중히 대하는 것은 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사선사라면 환자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는 고통과 불안감이 항상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온화한 마음씨로 친절하게 성의를 가지고 환자를 응대하는 깊은 [온정(溫情, warmth)의 정신]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에서의 현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환자를 대하는 온정의 정신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 219명, 외래환자 194명(남자 234명, 여자 176명)을 대상으로 하여 13개 항목에 대하여 X-선 촬영시 환자가 느끼는 의식을 조사하였다.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1항>의 “X-선 촬영시 왜 탈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67% 환자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으며, <2항>의 “촬영시 탈의하는 이유를 방사선사로부터 설명들었습니까?”하는 질문에 설명이 없었다는 대답이 65%로 나타났다. <5항>의 “탈의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는 탈의가 환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62%, <7항>의 “탈의 후 다른 가운데로 갈아 입었을 때의 느낌”은 52%의 환자가 그리 청결치 못하다고 하였으며, <12항>의 촬영시 방사선사에 대한 느낌이 좋았다고 답한 환자는 10%, 보통이었다는 70%로 나타났고, 좋지 않다는 생각에 대한 결과는 33%, 무응답자가 39%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의 결과로 보아, 우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하고 친절 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흉부 X선검사에 착용하는 검사복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

이 선 숙

최근 의료에서 patient care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각 병원마다 [환자를 가족처럼]이라는 구호와 포스터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X선 촬영에서는 환자에 대해서 탈의를

하는데 협력을 구할 경우가 많이 있다.

진단정보를 좋게하기 위해서는 목걸이, 단추가 있는 내의, 플라스틱이나 금속류가 부착된 브래지어 또는 내의, 약품을 바르거나 파스 등을 붙이면 장해음영으로 나타나 진단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환자에 있어서 탈의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못하여 고통을 강요하게 되어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검사복의 착용은 필요하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복은 각 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장해 음영이 생길 수 있고, 또 촬영을 하는데도 정확한 자세조정에 곤란한 점이 있어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관전압이 높을 경우에는 검사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둘째, 옷감의 소재보다는 그 두께와 직조 방법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셋째, 옷감이 밀착되지 않고 뜨거나 겹칠 경우에는 장해 음영이 잘 생겼으며

넷째, 옷감의 소재에 대해서는 폴리에스테이 70%, 면이 30%로 된 옷감으로 그 두께가 0.3 mm의 것이 가장 적당하였다.

이에 따라 폴리에스테이 70%, 면 30%의 재직인 옷감으로 검사복을 시작하였다.

그 옷은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기가 쉬웠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검사의의 겨드랑이까지 걸쳐 있어 유방이 보이지 않고 둘째, 청색으로 되어 있어 유방이 비쳐 보이지 않는다. 셋째, 앞면만을 가리게 앞치마 모양으로 되어 있어 착의와 탈의가 쉽고, 등이 열려있어 異物이 잘 보였다. 넷째 폴리에스테이 70%, 면 30%의 재질로 되어 있어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아서 흉부용 검사복으로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저자 등이 제작한 검사복은 여성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 일반 검사복에서는 알 수 없는 부착물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흉부용 검사복이라 하겠다.

특별발표

<7> The Study on the Crystal Growth of Silver Halide in Ammoniacal Emulsions

한국화학연구소

강 태 성

Silver chlorobromiodide cubic seed emulsion was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mmonia and phenylcarbamyl gelatin.

When BTS(Benzenethiosulfonate sodium salt) and TAl(4-hydroxy-6-methyl-1, 3, 3a, 7-tetraazaindene), as growth modifiers, were added in the seed emulsion, the silver halide microcrystals were obtained in the forms of cubo-octahedron, cotahedron, rhombic dodecahedron by variation of pAg value through controlled double jet.